

## ■ 여의도 칼럼

### 광고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최윤식 / 광주대학교 광고정보학과 교수

내가 <광고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는 셀을 올려놓았을 때 모두 웃었다. 그러나 내가 강의 시작하자... 어느 대학생 광고 캠프에서의 일이다. 광고에 관한 전문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광고는 전문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광고나 마케팅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지식을 나열한다고 기획서가 되지 않는다. 그 전문지식이 창조적 직관과 결합되어야 기획서가 되고 아이디어가 된다. 지금 세계적 명문 대학들은 하나같이 지식교육이 아니라 지혜교육을 부르짖고 있다. 광고란 지식이 많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의 일이다. 광고는 지식이 아니라 생각의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에서의 광고교육 또한 지식 교육을 지양해야 한다. 광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뛰어난 광고학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절대로 뛰어난 광고인이 되지는 않는다. 광고란 아이디어 산업이다. 기획이란 사실들의 의미에 대한 창조적 재해석 작업이며 사실과 사실간의 새로운 상관관계를 발견하는 일이다. 발상이 달라지면 광고가 달라진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요' 얼음, 눈, 물, 증기... 등은 고체-액체-기체로 전이되어 가는 종적 계열의 개념들이다. 그래서 수직적 사고라고 부른다. 그러나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요'의 발상은 얼음, 봄, 꽃... 등 다른 계열에 속하는 횡적 개념들이다. 우리는 그것을 수평적 사고라고 말한다. 광고는 발상이다. 발상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바르셀로나 람블라스 거리에는 칼럼버스의 동상이 높은 기둥 위에서 대서양을 바라보고 서있었다. 우리는 칼럼버스가 발견했다는 사실에 아무런 저항감이 없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의 방향을 돌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거기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무슨 新大陸이며 발견은 또 무슨 發見인가? 칼럼버스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원주민이 칼럼버스를 발견한 것이었다. 칼럼버스가 '심봤다'처럼 신대륙을 외쳤을 때 원주민들은 '이상한 놈들이 나타났다-아'고 외쳤을 것이다. '칼럼버스가 발견했다'는 아이디어가 되기 어렵지만 '원주민이 칼럼버스를 발견했다'는 아이디어가 된다. 마치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아니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되듯이.

베네통 광고로 유명한 올리비에로 토스카니. 그는 그야말로 혜성같이 나타난 세계 광고계의 스타다. 그가 하루아침에 세계 최고의 광고인이 되었다는 것은 광고전문가들로서는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그는 사실 廣告에 '廣'字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서산 간척지 마지막 물막이 공사 때 폐유조선을 가라앉혀 멋지게 해냈던, 그래서 '정주영 공법'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토목공학 교과서에 실렸다는 왕(?)회장은 토목공학 박사였던가? 내노라 하는 토목공학자들이 모두 손든 뒤의 일이 아니었던가? 시바스 리걸 광고를 만들었던 번버

크도 광고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로 치자면 국문과 출신이다. '광고의 황제'라는 오길비 또한 以下同文이다. 올해 칸느와 클리오에서 그랑프리를 휩쓴 DDB 월드와이드의 Keith Rainhard 회장은 대학도 안나온 분이다. 그가 만든 맥도널드 광고의 'You deserve to take break'는 지난 백년간 최고의 징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런 사실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래도 광고인은 과연 전문가인가?

시바스 리걸의 걸작 광고 하나. "손님이 보면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주인이 보면 벌써 반이나 비었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둘 다 반병이라는 사실이다. 암울했던 과거의 우화 하나. 자기 집을 때려부수는 철거반원을 향해 한 젊은이가 악을 썼다. "김일성만도 못한 시키들!" 경찰은 일시구나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다 이적단체 수괴 고무 및 찬양 혐의를 적용,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추가했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개만도 못한 놈'이라는 표현은 '개'를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서 무혐의 처리했다. 바보 경찰과 천재 검사 - 그 분수령은 똑같은 말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였다.

전남대학 교수가 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전남대학은 全南 최고 대학이다.' 그러자 호남대학 교수가 '호남대학은 湖南 최고의 대학'이라고 말했다. 이에 질세라 조선대학 교수가 '조선대학은 朝鮮 최고의 대학'이라고 말했다. 나도 질 수가 없지 않는가? 모두 대단한 대학이라고 비행기를 태우고는 '광주대학은 光州 최고의 대학'이라고 말했다. 모두들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아직도 이해가 안가는 분을 위한 힌트. 한골목 안에 3개의 식당이 있었다. 첫 번째 집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집>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그러자 두 번째 집에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집>이라고 내걸었다. 그러자 세 번째 집은 <이 골목 안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서울 성북동에는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맛있는 집>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언제나 문전성시다.